

# 국가의 트라우마와 소설의 대응\*

조명기(부산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트라우마의 치유 방식 |
| 2. 국가의 트라우마와 소설적 증상 | 4. 결론          |

## 1. 서론

한국의 탄광촌은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되었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1960년대 군사 정권이 ‘조국 근대화’를 절대가치로 강조하면서부터였다. 근대화를 위한 값싼 에너지가 절실했던 국가는 대규모 탄좌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전촌에 불과했던 척박한 땅으로 도시 빈민 하층, 농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sup>1)</sup>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이 늘어나면서 탄광촌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었다.<sup>2)</sup> 사택 제공이라는 유인책이 도시 빈민과 소작농민을 탄광촌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저탄가정책과 국가보조는 근대화·산업화의 에너지원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으로 기능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학진흥방안 인문한국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1) 김세건, 「‘찌들은 몸’-탄광개발과 환경문제」, 김세건 외, 『카지노와 폐광촌』, 일신사, 2006, 197쪽 참조.

2) 『강원일보』, 1996.7.8. 사북·고한 지역을 예로 들면, 1973년 3만 2천여 명에서 1983년 5만 5천여 명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던진 두 차례(1973년, 1979년)의 석유과동이 석탄증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탄광촌이라는 로컬의 형성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근대화·산업화를 향한 국가의 기획과 의지였고 또 하나는 글로벌 경제 변화 속의 에너지자본이었다.

탄광촌의 붕괴와 몰락 또한 철저히 민족국가와 자본의 영향 아래 진행되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면서 값싼 석탄의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국가는 세계 에너지자본이 가한 충격을 완화하기는커녕 주유종탄정책과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함으로써 그 충격을 탄광촌에 고스란히 전가하였다. 광부들의 대량실적이 이어졌고 탄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탄광촌은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공동화되었다.<sup>3)</sup> 탄광촌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몰락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은 민족국가와 자본주의라는 근대의 두 축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탄광촌이라는 로컬은 철저히 근대의 산물이었다.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논의<sup>4)</sup>에 기댄다면, 탄광촌은 근대의 기획과 의지로 인해 특정 장소가 추상적으로 수량화되어 통제가능한 공간, 즉 (재)생산된 근대적 공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전촌→탄광촌→폐광촌→가지노라는 편폭이 큰 변화가 시간적으로 극도로 압축되어 진행되었기에, 고도의 산업성장을 자랑하는 한국의 경우에 탄광촌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막장의 의미가 ‘개도의 막다른 곳’에서 ‘사회 최하층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사회적 삶의 막다른 곳’으로 확장될 정도로, 탄광촌은 근대적으로 구획된 공간 중 가장 열악하고 소외받는 공간이었다. 문학이 탄광촌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비슷했다. 민중문학·노동문학 담론이 핵심을 이루던 시기에, 한국 자본주의의 양면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탄광촌은<sup>5)</sup> 문학 담당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특히, 탄광촌 소설<sup>6)</sup>의 경우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미미했

3) 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2001, 226쪽 참조.

4)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71-80쪽 참조.

5) 남기택, 「강원 영동 지역의 문학적 정체성 연구-전형적 작가와 작품의 양상」, 『현대문학 이론연구』 4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6, 121쪽 참조.

6) 이 글에서 탄광촌 소설은 탄광촌(폐광촌)을 주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소설을 범박하게 가리킨다. 탄광소설이 아니라 탄광촌 소설이라고 한 이유는, 이들 소설이

다.7) 김경수는 그 이유를, 우리 사회의 가장 잊고 싶은 환부와도 같은 탄광촌의 삶을 쓰거나 읽는 데서 발생할 도덕적 혼란에서 찾는다.8) “우리 사회의 가장 잊고 싶은 환부”라는 표현은 적확하면서도 주의를 요한다. 1975년 태백시에 세워진 산업전사위령탑의 비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강원도는 석탄이 근대화의 에너지로 지정되면서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보고”로 고무되었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해야 하는 광부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병”과 똑같은 “전사”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그들의 죽음은 “나라위해 생명”을 바치는 순국행위로 간주되었다.9) 다시 말해, 탄광촌과 광부는 주유종탄정책 이전까지 한국 근대화의 기반으로 고무되기만 했을 뿐, 그것이 지닌 근대화의 암부·희생양적 성격은 진폐·규폐라는 직업병과 더불어 은폐되었다. 더구나,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는, 탄광촌이 “도시적 세련됨에 길들여 있는 일반인의 의식에서 여전히 남의 일로 남아 있”<sup>10)</sup>을 수 있는 유용한 조건이 되었다.

이 글은, 탄광촌(폐광촌)을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탄광촌 소설이 “잊고 싶은 환부”로서의 탄광촌이라는 로컬을 어떻게 기억하고 재생산하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문학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나 모방이 아니라 또 다른 실재를 생산하는 기억 공간이기에,<sup>11)</sup> 은폐하고 싶은 로컬을 의식의 표면 위로 견인하는 문학 텍스트는

- 
- 노동내용이나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탄광촌(폐광촌)이라는 장소성을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폐광촌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소설들은 채광 등의 노동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장소성을 여전히 탄광에서 찾는다. 기억을 넘어서는 것의 기억인 공간을 강조하기 위해(가스통 비슬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184쪽 참조) 탄광촌 소설이라 칭하기로 한다.
- 7) 탄광시는 1천여 편의 작품이 생산되었다. 정연수, 『탄광시의 현실인식과 미학적 특성 연구』, 강릉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쪽 참조.
- 8) 김경수, 『축도로서의 탄광과 그 소설화』, 최용운, 『흰 겨울 검은 봄』, 세계사, 1991, 332쪽 참조.
- 9) 조명기·배윤기, 『로컬 지배 카르텔과 로컬 정체성 형성의 주체 투쟁 - 강원남부 폐광지 사북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 308쪽.
- 10) 김경수, 앞의 글, 332쪽.
- 11) 박은주, 『기억과 망각의 역설적 결합으로서의 글쓰기』,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4, 313쪽 참조.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주로 기억을 통해 탄광촌에 접근해야 하는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 즉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말미암아 폐광이 급속도로 추진된 시기 이후의 작품들을 텍스트로 삼는다. 최용운의 『흰 겨울 검은 봄』(1991), 박상우의 『시인 마태오』(1992), 현길언의 『회색도시』(1992), 한강의 『검은 사슴』(1998), 김도연의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2003)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국가의 트라우마와 소설적 증상

### 1) 사북사건과 탄광촌의 성격

조국 근대화의 환부리는 탄광촌의 성격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사건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개된 사북사건<sup>12)</sup>이었다. 사건 발발의 표면적인 이유는 어용노조에 대한 광산노동자의 불신에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억압적 국가기구인 경찰·읍사무소와 탄광자본, 어용 노동조합의 로컬 지배 카르텔에 있었다.<sup>13)</sup>

국가는 법적인 명령으로써 로컬을 기획하고 설명하는 존재인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인 로컬<sup>14)</sup>들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력관계와 양상들을 통해 상상적으로

12) 1980년대에는 주로 사북사태로 불렸으며, 노동·지역운동가들은 사북항쟁이라 불렀다. 이 글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공식 명칭인 '사북사건'을 따랐다.

13) 박철한, 『사북항쟁연구: 일상·공간·저항』,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4쪽 참조.

14) 로컬(local)은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를 가리키지만 상대적인 개념의 용어이다.(구동희,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 『지리학연구』 44권 4호, 국토지리학회, 2010, 514-515쪽 참조) 예를 들어, 국가를 상위 단위로 삼을 경우 그 국가 내의 특정 지역이 로컬이 되며, 글로벌을 상위 단위로 삼을 경우 그 내부의 특정 지역이 로컬이 된다. 이 글에서의 로컬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내의 특정 공간을 가리키는데, 지역과 지방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지역은 가치중립적인 수평적 공간개념이라면 지방은 근대성의

추정되고 인정받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근대의 국가는 여타 권력과의 관계에 기초해 로컬을 통제하고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정체성을 구축해 갔다. 탄광자본과 어용노조와의 카르텔을 통한 로컬 통제 자체가 수출입국·근대화를 표방하는 국가의 실체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이 카르텔은 대덕제도 등 저탄가정책과 증산정책을 통해 탄광촌의 노동환경을 극도로 열악하게 만들었다.<sup>15)</sup>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복사건은 우발적인 “항쟁적 성격을 갖는 노동자 투쟁”<sup>16)</sup>이었다. 동시에, 노동자 투쟁인 이 시위는 한국사회 초유의 로컬 점거 투쟁,<sup>17)</sup> 로컬 전체의 항쟁이었다. 계급과 로컬이 일치하는 탄광촌의 특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복사건은 억압적 국가기구와 자본과 어용노조의 카르텔 전체를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당시의 언론들은 사건이 진행되던 4일 간의 로컬을 “폭력에 갇힌 공포의 탄광촌”<sup>18)</sup> 등으로 묘사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공포를 경험한 측은 로컬이 아니라는 점이다. 로컬을 기획·재편의 대상으로 관리한다고 상상됨으로써 굳건한 권력의 안정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던 국가가 존재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초의 내부 발생적 공포를 경험한 주체였다. 로컬이 국가를 유기체적 존재로 직조해내는 토대였던 만큼, 국가는

---

표상인 국가 내지 중앙과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지닌 위계적 공간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용규,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해안, 2009, 73쪽 참조) 이 글에서는, 각 로컬들에서 작동하는 각종 권력 관계의 전략들이 수평적인 개념의 지역을 수직적·위계적인 질서 내의 지방으로 묶어내는 과정 속에서 상위 공간의 실체와 정체성이 추인된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즉, 크기(size)의 측면에서 상위 공간이 선형적으로 존재하여 하위 공간인 로컬을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와 종속적인 차원으로 질서짓고 규합한다기 보다는, 각 로컬 내부에서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권력들의 관계 양상이 스케일의 차원에서 상위공간과 중앙을 상상해낸다고 본다.

- 15) 1975년에서 1994년까지 탄광 노동자의 사망자 수는 2천7백여 명이었고 중경상자는 9만 1천 명이였다.(성희직, 『탄광지역 노동운동의 시대적 변화』, 강원사회연구회 엮음,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7, 614쪽 참조)
- 16) 사복청년회의소 편, 앞의 책, 202쪽.
- 17) 박철한, 앞의 논문, 26쪽, 76쪽 참조.
- 18) 『동아일보』, 1980.4.24.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인 폭력과 직면해야 했다. 정치 우위의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국가는 안정성과 기획력에 균열을 유발하는 미증유의 로컬점거 저항에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sup>19)</sup> 사북사건의 이런 성격은, 20여 일 후에 일어난 광주민주화항쟁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국가는 광주 일대를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극악의 폭력성을 드러냈다. 광주민주화항쟁은 로컬의 항쟁이기 이전에, 국가가 양민 학살이라는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로컬(인)이 공포를 경험한 사건이었다.<sup>20)</sup> 사북사건에서 지배 카르텔 특히 국가가 경험한 공포는 광주에서 공수부대를 동원한 광기의 폭력으로 이어졌던 셈이다.<sup>21)</sup> 결국, 사북사건은 기존의 국가 주도적 지배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정도로 충격적인 자극이었는데, 국가는 우발적인 이 사건을 경악이란 수동적인 형태로 경험해야 했다.<sup>22)</sup> 이런 점에서 사북사건은 국가가 경험한 트라우마적 사건이며 탄광촌은 국가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로컬이라 할 수 있다.

트라우마적 사건인 사북사건과 그 현장인 탄광촌은 문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망각의 대상이었다.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과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 망각 혹은 침묵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국가가 경험한 공포는 국가의 강력한 지배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징되어서도 재현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80년 사북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고 표정마저 달라”지거나 “아무 말 없이 막장으로 먼저 올라가 버”<sup>23)</sup>리는 사북사건 당사자(광부)들의 침묵도, 사북사건의 현장인 탄광촌을 “잊고 싶은 환부”로 묻어버린 문학적 침묵<sup>24)</sup>도, 가해자와

19) 박철한, 앞의 논문, 77쪽 참조. “이와같은 폭력사태가 파급돼갈 때 이로운것은 북괴뿐”(『경향신문』, 1980.4.24)이라는 언론 보도도 지배 카르텔을 통해 자신을 정립한 세 주체 중에서 특히 국가가 경험한 공포의 크기를 확인해준다.

20) 최정기, 『5·18과 양민학살』,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사』, 2001, 74-121쪽 참조.

21) 박철한, 앞의 논문, 2쪽 참조.

22) 박찬부, 『트라우마와 정신분석』, 『비평과 이론』 15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0 봄·여름, 33-54쪽 참조.

23) 정선지역발전연구소 편, 『1980년 4월 사북(사북사건 자료집)』, 2000, 6쪽.

24) 반면, 광주는 '80년대 해석의 준거에서 '90년대 해석의 대상으로 바뀌지만, '90년대 후일담 소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후일담 소설들은, 국가의

피해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정신적 상흔을 남기는<sup>25)</sup> 트라우마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억 상실<sup>26)</sup>에 해당한다.

## 2) 소설에 나타난 트라우마 증상

1992년에 발표된 『시인 마태오』의 일부는 사북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을 묘사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광업소 소장집이 전소됐다. 소장은 도망치고 그 부인이 광원들에게 끌려나와 나무에 알몸으로 묶인 채 린치를 당하고 있다”<sup>27)</sup>는 소문이 이런 연상을 더욱 북돋는다. 그런데, 주인공 마태오가 이 사건에서 경험하는 것은 트라우마적 증상인 공포와 광기이다.

그 아홉 시간 동안 태오가 흑사리 곳곳에서 목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끔찍스런 광기뿐이었다. (중략) 순수했던 애초의 열정은 사라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진 건 오직 난행과 추행, 그리고 파괴뿐이었다. 요컨대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改惡), 그리고 파업이 아니라 파국의 사육제였다. / (중략) / 태오는 다시 한번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두리 파출소 쪽에서 검붉은 화염이 치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정은 광업소 쪽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폐허, 혹은 초토……그리고 광기의 주체들. 태오가 그곳에 당도하여 목도한 것은 오직 그런 것들뿐이었다.(294-295쪽)

그는 지배 카르텔과 그에 대한 믿음이 공격의 대상이 되자 공포를 느낀다. 노조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파업은, 탄광자본의 표상체인 광업소 소장의

---

학살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주의 ‘시민군’에서 윤리적 순수성과 집단성이라는 연대의 고리를 찾기도 하는 등 로컬 광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박은태, 『문학사의 관점에서 본 1990년대 후일담 소설』, 허영재 외, 『혁명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박이정, 2009, 142-153쪽 참조) 이처럼, '80년의 광주는 사북과는 달리 문학적 부채의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5) 박영주, 『5·18 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224쪽 참조.

26) 주디스 허먼,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플래닛, 2009, 88-89쪽, 398쪽 참조.

27) 박상우, 『시인 마태오』, 세계사, 1992, 297쪽. 이후 인용 쪽수만 표기.

집과 억압적 국가기구인 파출소를 공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탄광촌을 지배하고 있던 원칙과 질서를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사건은 그에게 “끔찍스런” 광기로 비치면서 공포를 불러온다. 사건 가담자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통제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를 고스란히 망각”(295쪽)한 사람들, 기존의 지배질서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면서 무질서한 혼돈 상태를 야기하는 사람들로 간주된다.

마태오가 혼란스런 파괴를 자행하는 광부들을 알 수 없는 존재·설명할 수 없는 존재<sup>28)</sup>로 인식하면서 그들에게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마태오는 욕망의 인물이지만 광부들은 욕동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상징계에 속하는 욕망은 법과 질서, 규범의 틀에서 생성되는 상징 질서의 산물이지만, 실재계에 속하는 욕동은 법의 구속력과 억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잠재적 트라우마이다.<sup>29)</sup> 마태오가 순수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욕망한 것은 “특별 상여금 횡령과 임금 인상, 그리고 노조문제까지 개선하겠다는 애초의 의도”(294쪽)만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부들이 억압적 국가기구와 탄광자본을 공격하면서 추구하는 욕동은 마태오가 기대하는 욕망의 수준을 넘어선다. 마태오는 광부들의 욕동을 “정도(正道)의 이면”에 있는 “극단”(295쪽)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욕망은 욕동을 방어하는 기제가 되며, 마태오의 공포는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구축해온 지배 카르텔과 국가가 경험하는 공포가 된다.

『시인 마태오』의 사북사건 묘사는 『내 사랑, 사북』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2005년에 발표된 『내 사랑, 사북』은 광부의 16세 딸 수하의 눈으로 사북사건의 전 과정을 충실히 그려낸다.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지금은 “카지노촌으로만 기억”되는 “이 곳에 살던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sup>30)</sup>는 「작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소설은 사북사건과 탄광촌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환기에 충실히 봉사한다. 그런데 기억의 안내인인 수하의 시선은 광부들의 시선에 밀착해 있다. 마태오가 사북사건을 광기에 의한 공포로 경험하는 데 반해, 수하는 기존 질서의 전복을 기대하면서 쾌감을 느낀다. 마태오의 욕망이 광기에 의한 공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수하의 욕동적 쾌락이 발생한다.<sup>31)</sup> 통제의 필요성을

28) “어리석은 인간들……버려진 이름을 다시 또 버리고 스스로 몸져눕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298쪽)

29) 박찬부, 앞의 논문, 48-50쪽 참조.

30) 이옥수, 『내 사랑, 사북』, 사계절, 2005, 199-201쪽. 이후 인용 쪽수만 표기.

인정하는 마태오에게 있어, “꽉 막혀 있”다가 “한꺼번에 밖으로 뿔어져 나”오는 욕동은 불가지한 광기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사북사건 직후를 다루고 있는 『회색도시』에서도 사북사건과 탄광촌의 트라우마적 성격이 드러난다. “큰 사건 터”<sup>32)</sup>진 후 국가는 부실 민영 탄광을 국영기업체로 정리하면서 탄광촌 출신인 인경진을 소장으로 임명한다.

지난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선 자개공 산하 광산부터 대대적인 경영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략) 부실 광업소 정비 문제는 단순히 회사 경영 차원이 아니라, 국가 관리 즉 일종의 안보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중략) 지난번처럼 터진다면 정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지난 사태처럼 광업소 소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김일성뿐입니다.(69-70쪽)

사북사건은 국가를 위협한 사건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탄광촌은, 강력한 통제력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재확인해야 하는 로컬로 간주된다. 민영 광업소는 부실하다는 이유로 국가 소유로 전환되며 탄광촌에는 푸른 도시를 향한 꿈이 강요된다. “당신(소장-인용자)은 이 도시의 왕이고 나는 포도대장”(254쪽)이라는 경찰서장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억압적 국가기구들은 견고한 지배력을 재구축한다. 이 체제는, 로컬에 대한 지식을 관리함으로써 즉 이 탄광촌 출신의 인경진을 광업소 소장으로 임명하고 “피차 고발하자는”(239쪽) 정화함을 고백의 장치로 운영함으로써, 트라우마의 현장을 통제하고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려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국가는 로컬 탄광촌에서 절대적인 통제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나, 로컬인들의 비리를 서로 고발하는 쪽지가 들어있던 정화함은 텅 비어 갈 뿐만 아니라 인경진을 고발하고 모함하는 쪽지로 들어차게 되며, 인경진은 이것을 “배반의 증표”(284쪽)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곳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281쪽)다고 고백하게 된다. 더구나, 엄격한 관리와 징벌에도 불구하고 인경진은 탄광촌 사람들의 “관능적인 춤”과 “원초적인 욕망”(292쪽)으로 가득찬 카바레의 가면 무도회를 목격한다.

31) ““그래, 다 뒤집어 버려라. 광부들도 사람이다.” / 처음에는 짜증스럽던 소리가 어느새 내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을 후련하게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속에서 꽉 막혀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뿔어져 나오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다.”(161쪽)

32) 현길언, 『회색도시』, 고려원, 1993, 14쪽. 이후 인용 쪽수만 표기

인경진을 초청한 카바레의 사장 오병만은 그에게 탄광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똑똑히 확인”(293쪽)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인경진은 실패를 자인하고 탄광촌을 떠난다. 이처럼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국가는, 탄광촌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여 로컬 지배력을 재확인하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법과 질서를 끊임없이 위반하는 공간, 지배체제의 권위를 위협하고 추방하는 공간,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욕망이 꿈틀거리는 미지의 공간임을 확인할 뿐이다. 이런 미지·불가해함은 상징계가 지배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실재계의 욕동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1998년에 발표된 『검은 사슴』 또한 이 로컬이 부재의 공간, 미지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북사태” 때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던 힘의 도시”<sup>33)</sup>가 “산 채로 버림받은 짐승”(122쪽)이나 “오래 전에 숨이 끊어”진 “작은 짐승”(278쪽)같은 폐광촌으로 변했다는 데 있다. 폐광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은 사진작가 장종욱과 폐광촌 출신의 임의선이다. “눈빛의 강렬함이 언뜻 동물적인 느낌을 주”(125쪽)는 장종욱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광부들과 탄광촌과 폐사택촌을 촬영했지만, 화재로 인해 “필름들과 인화지들이 모두 재가 되”(97쪽)어 버린다. 폐광촌 출신의 의선<sup>34)</sup>은 주민등록초본도 호적등본도 주민등록번호도 갖지 못했으며 “무표정”(391쪽)한 서울에서 자신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157쪽)버리고 “모든 단어들”이 증발해”(391쪽)버려 “불가해한 침묵”(41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유령 인물로 묘사된다.<sup>35)</sup> 탄광촌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억과 기록에서 삭제된 셈이다. 이 텍스트는 서울의 두 사람(인영과 명윤)이 의선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지만, 당연히 그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258쪽)의 의선을 찾지 못하며 그녀와 탄광촌의 흔적만을 확인할 뿐이다.<sup>36)</sup> 나아가 그들은 “의선이 말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의선이

33) 한강, 『검은 사슴』, 문학동네, 1998, 113쪽. 이후 인용 쪽수만 표기.

34) 폐광촌의 “낮고 더러운 건물들과 인적 없는 시가지의 어떤 부분이 기묘하게 의선을 연상시킨다”(122쪽)

35) 텍스트 곳곳에서 이어지는 검은 사슴에 관한 이야기는, 광부들과 임의선 그리고 탄광촌(폐광촌)의 트라우마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검은 사슴은 지하에서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상을 바라지만, 지상으로 올라와 빛을 보는 순간 죽고 만다.

36) 그들의 추적은 정면얼굴이 아닌 옆얼굴의 임의선 사진과 불투명한 기억에 의존해

라는 여자에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282쪽)생각한다. 이처럼, 임의선, 장종욱, 탄광촌(폐광촌)을 그리는 『검은 사슴』의 태도 역시 앞서 다룬 텍스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 텍스트는 추적하고 있는 대상들의 소멸이 국가의 무지와 방치, 그리고 의도적인 폐쇄로 인해 발생했음을 암시한다. 임의선이 국가의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유명인물이 된 것은 “외딴 화전민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라에서 모르기 때문”(378쪽)이며, 탄광촌이 소멸하게 된 것은 “정부의 폐광 조치”(25쪽) 때문이다.

탄광촌 소설은 사북사건과 탄광촌을 공포와 광기의 사건, 법과 질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체제의 권위를 위협하고 추방하는 공간, 동물<sup>37)</sup>적인 욕망이 꿈틀거리는 미지의 공간, 이질적인 외-존재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 국가의 트라우마를 인식하지 못했기에 이를 전경화하려는 문학적 노력을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이들 소설에는 국가가 경험한 공포와 충격, 혼란스런 무지라는 트라우마적 증상이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다.

### 3. 트라우마의 치유 방식

#### 1) 허위적 해소: 경험자의 치환

사북사건과 탄광촌이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로 재현되어 있는 탄광촌 소설엔 트라우마를 해소 혹은 은폐하기 위한 허위적 전략들 또한 내밀하게 개입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가의 트라우마를 개인의 트라우마로 치환하는 것이다.

---

있다. 의선은 자신의 삶을 몇 마디로 압축하여 전하고 싶어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서만 언어를 만들어낼 뿐이다. 옆얼굴의 사진과 불투명한 기억, 전해지지 않는 언어는 직접적인 회상을 회피하려는 트라우마 증상과 상동적이다.

37) 『흰 겨울 검은 봄』 역시 탄광촌 사람들을 “가장 동물적인 사람”으로 설명한다.(최용운, 『흰 겨울 검은 봄』, 세계사, 1991, 217쪽. 이후 인용 쪽수만 표기)

『시인 마태오』의 마태오는 고교 졸업 때까지 탄광촌에서 지낸 후 시인이 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한다. 서울에서 시인으로 등단하고 신문사 기자가 되지만, “(나는) 이라는 주어를 달고 소신을 밝힐 수 없는 시대”(32쪽), “말의 마지막 성역이 되어야 할 언론 지대에서조차도 말이 사라져버린 시대”(54쪽)인 유신시대에서 그는 언어를 잃어버린다. 신문사를 사직하고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은 후 그는 다시 탄광촌으로 돌아오지만, 탄광촌은 마태오 개인에게 있어 트라우마의 공간이다. “두번 다시는 이 척박한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자신에게 굳게굳게 다짐을” 한 이유는, “콩가루 같은 집구석”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게 될까봐 전전긍긍”(145쪽)하며 지냈기 때문이다. 태오에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의 비밀처럼 이상스런 형태로 남아” 있는데, “애정의 원형을 가두고, 억누르고, 또한 압도하는 듯한 힘”은 “아버지 삶의 그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적 독성”(198쪽)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있는 탄광촌으로 귀환한 것은 개인적인 트라우마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뜻하게 된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주체가 마태오 개인으로 설정됨에 따라, 마태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그는 서울을 떠나 탄광촌으로 돌아올 때도 “모든 문제가 내 속에 있고, 그 해결의 방법도 또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을 뿐”(131쪽)이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마 선생님이라고 하더”(248쪽)라는 요구를 받는다.

마태오의 트라우마는 황혜리라는 등장인물에 의지해 해소된다. “태오가 흑사리를 떠난 이후의 집안 사정을 태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녀는 “마 선생님이 누군지도 알아요”(249쪽)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다. 태오는 그녀를 통해 아버지와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버지를 부정하려는 자신의 격렬한 감정<sup>38)</sup>이 위무되고 마침내 죽는 순간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이유는, “그녀(황혜리-인용자)의 얘기를 듣는 순간 비로소 연결 고리를 형성하게”(252쪽)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어를 가르치는 국어교사인 황혜리를 통해 태오는 언어를 회복하게 된다. 일종의 분석자이자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종사자인 국어교사의

38) “정말이지 죽음 앞에서도 태오는 아버지의 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252쪽)

언어를 통해 태오의 외상적 기억, 소유되지 않은 경험, 이해되지 않은 경험은 “그 모든 것이 해독 가능한 상태의 언어”(261쪽)의 서사적 기억, 주체로서 완전하게 겪은 경험으로 바뀌고 개인의 트라우마는 치유된다. 사북사건을 공포와 광기로 설명해내는 언어는 개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숭고한 언어가 된다.

폐광촌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검은 사슴』에선 개인의 트라우마가 소설 전체를 압도한다. 인영은 의선을 통해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몸 속의 연약한 부분”(272쪽)을 상기하며, 명운은 탄광촌은 자신과 여동생 명아의 “옛 동네와 영락없이 닮아 있”(122쪽)다고 생각한다. 임의선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혹은 내가 돌보던 인물의 상실<sup>39)</sup>과 가난이라는 개인의 과거사가 서술된다. 임의선은, 명운에게는 여동생을 인영에게는 언니를 환기시키는 인물이다. 따라서, 임의선의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은 자신들의 개인의 트라우마와 대면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트라우마의 치유는, 터널 붕괴로 인한 열차사고가 발생하면서 즉 과거 탄광촌에서 일어나던 갱 붕괴 사고를 현재형으로 경험하면서 극적으로 진행된다. 이 사고 이후 명운은 “오랜 흉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은 평화”(424쪽)가 어린 표정을 갖게 되며 여동생과 연락이 닿게 된다. 또한, 장종욱은 “그 사람들(광부들-인용자)이 사는 게 힘들고, 강하고, 그래, 처절하기도 하니까, 그런 걸 찍는 것으로 해서 당신까지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한다며 자신은 “많이 웃고, (중략) 행복하게 살고 싶”(409쪽)다며 서울로 떠나버린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기다렸던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417쪽)는 생각을 하며 “부드러움과 애잔함이 느껴”(429쪽)지는 광부의 얼굴을 촬영한다. 결국, 이 텍스트에선 현재의 고통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과거의 경험이 흔적으로 남아 있으며 석탄을 캐듯 외상적 사건을 캐들어간다는, 탄광촌(폐광촌)과 트라우마 치유 사이의 외형적 유사성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탄광촌(폐광촌)은 국가의 트라우마가 각인되어 있는 로컬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한 세 등장인물 개인의 트라우마가 드러나고 치유되는 공간이다. 탄광촌의 소멸 즉 폐광과 임의선의 자살 암시가 상징하듯, 탄광촌에 각인된 국가의 트라우마는 개인의 트라우마 뒤로 다시 한번 은폐된다.

39) 인영은 자신을 돌보던 언니의 죽음을 경험하며, 명운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여동생의 끊임없는 가출을 경험한다.

『흰 겨울 검은 봄』 또한 탄광촌을 개인의 트라우마로 가득찬 공간으로 묘사한다. 주인공 주현이 하청 광업소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이유 역시, 『검은 사슴』과 유사하게 자신을 돌보던 인물의 죽음과 가난 때문이다.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죽은 후 주현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광부로 일하던 형이 사고로 죽자, 주현은 형에게 “빛을 졌다”는 “괴로움”(49쪽) 때문에 탄광촌에 들어온다. 그리고 “자신의 관념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에 대한 죄책감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326쪽)자 탄광촌을 떠날 결심을 한다. 주현 외의 많은 등장인물들의 행위도 개인의 가정사에 의존하고 있다.<sup>40)</sup>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인경진의 욕망과 탄광촌의 동물적인 욕동이 충돌하는 과정을 그린 『회색 도시』에서, 인경진의 욕망 또한 개인의 트라우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사람들이 즐거움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푸른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결심은 곧바로 “순간 그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온 아버지 모습과 원한과 증오(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원한과 증오-인용자)를 품고 살다가 스스로 죽은 누이의 모습”(82쪽)의 상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인경진은 “불붙는 복수를 준비”했다고 말하는 카바레 사장 오병만에게서 “남편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살던 누이”를 떠올리면서 “비로소 그의 실체”를 실감하게 되고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297쪽)한다. 또한 아내는 푸른 도시를 향한 인경진의 욕망을 “광산고교 가난뱅이 막장 인생의 콤플렉스를 검은 도시 성주가 됨으로 채우려 한다”(241쪽)는 개인의 트라우마 탓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다 실패하지만, 해소 추진과 실패의 원인이 개인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서사화됨에 따라 국가의 트라우마는 서사 밖으로 밀려나 은폐된다.

많은 탄광촌 소설에서 사북사건과 탄광촌은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로 기억되던 서도, 이 기억은 곧바로 등장인물 개인의 트라우마로 치환된다. 탄광촌에 각인되어 있는 국가의 트라우마는 서사의 표면에서 강조되는 개인의 트라우마와 연계되지 않은 채 개인의 트라우마 뒤로 은폐되어 언어화되지 않는다.

40) 이를 두고, 김경수는 “탄광지대가 지니고 있는 사회의 축도로서의 의미가 암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큰 맥락을 환기하고 연맥시키는 데 있어서 긴밀한 연관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김경수, 앞의 글, 339쪽)고 평가한다.

더구나 개인의 트라우마는 대부분 부재하거나 무력하거나 폭력적인 아버지(혹은 매부)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개인의 트라우마가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되면서, 텍스트 내에서의 트라우마 치유는 대타자의 회복과 인정이라는 상투적인 묶기 작업(binding)을 통해 진행된다. 『시인 마태오』의 마태오는 황혜리의 도움으로 규범의 언어를 회복한 후 부정해왔던 아버지의 꿈을 인정하게 되며, 10년 후 아들과 함께 탄광촌을 찾은 『회색 도시』의 인경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309쪽)는 아버지가 되며, 『흰 겨울 검은 봄』의 주현은 서울의 은지 말대로 서울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한다. 또한 텍스트 외적으로 볼 때, 개인의 트라우마로 치환된 서사는 독자 개인이 아버지의 부재·무능·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상상적으로 경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 보편적인 공포로 인해 유능하고 정의로운 대타자에 대한 요구가 유발된다. 그러나 이때의 유능하고 정의로운 대타자란 새로운 정의를 확고히 정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전의 상태를 정의로 복원할 능력을 갖춘 보수적인 존재<sup>41)</sup>이다. 국가의 공포가 개인의 공포로 치환되면서 국가와 개인의 동일시가 조장될 때,<sup>42)</sup> 보수적인 대타자를 요구하는 개인은 그 자체로 이미 대타자의 대리인이 된다. 『내 사랑, 사북』이 “우리 아빠도 빨갱이고 (중략) 나도, 엄마도, 수한이도 빨갱이”로 끝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소설의 작가 이옥수가 “지금까지 명예회복이 되지 않아 폭도라는 누명을 쓴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서 사북에 대한 기억이 “오히려 사북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을까 자꾸 겁이 난다”(201쪽, 「작가의 말」)고 적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많은 탄광촌 소설들에서 국가의 트라우마는 대타자를 상실한 독자 개인의 트라우마로 반복적으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트라우마가 허위적으로 해소되는 또 하나의 방식은 탄광촌이라는 로컬의 대척점에 서울이라는 또 하나의 로컬이 입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트라우마가 개인의 트라우마로 치환됨에 따라 등장인물이 거처하는 공간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41) 트라우마의 치유는 욕동의 질서화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박찬부, 앞의 논문, 47쪽 참조)

42) 배경민, 「영화 내러티브의 트라우마 연구-들뢰즈의 비표상적 사유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1, 61쪽 참조.

없는데, 이때 등장하는 공간은 주로 서울이다. 수평적인 개념의 지역공간인 서울과 탄광촌이 위계화의 질서에 의해 중심지방으로 재편성될 때,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로 인정받는다. 물리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방식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지방으로 재규정함으로써 근대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해내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는 철도이다. 실제의 철도는 언제나 특정 지역에서 출발하여 또 다른 지역에 도착하지만 철도를 건설하는 주체는 대체로 국가이다. 국가는 지역들에 위계를 부여하여 중심(수도)-지방으로 재편성하면서 중심(수도)에 국가의 표상체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중심(수도)은 국가의 권력이 상당 부분 위임되어 발현되거나 집중되는 로컬로 관리되기에, 국가라는 상위범주의 특징적인 부분 즉 제유로 기능한다. 특히 '조국 근대화'와 더불어 진행된 서울 집중화는, 탄광촌을 파괴적이고 불가해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중심(탄광촌과 열차로 연결된 수도)으로 대체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회색도시』의 인경진은 탄광촌을 푸른 도시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와 맞닿아 있음을 여러 차례 역설한다. 그러나 그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서울과 탄광촌을 이어주는 새마을호이며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울이다. 인경진은, 서울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불시에 탄광촌에 들이닥친 감사반원이나 서울과의 또 다른 연결선인 전화를 통해 탄광촌 사람들을 지배한다.<sup>43)</sup> 인경진의 승리는 “전국 정화 모범 최우수 직장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각하의 표창을 받은”(235쪽) 인경진이 새마을호 열차에서 내려 환영을 받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리고 탄광촌은 끊임없이 서울과 비교된다. 탄광촌의 한식집 마담은 “서울 어디에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다”(32쪽)는 평가를 받으며, 탄광촌의 거리는 “서울 뺄치게 유락시설들로 꽉 들어”(53쪽)찬 곳으로 묘사된다. 또한, 서울은 인경진의 실패를 예언하고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아기장수 설화는 이 텍스트에서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을 당”(83쪽)하는 것으로 끝나며, 서울의 아내는 인경진을 비난하면서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차갑게 거절하며, 인경진은 결국 “사표를 제출하기 위해서 서울로 떠”(304쪽)난다. 뿐만 아니라, 반동인물이었던 오병만과 나미영 역시 인경진과 더불어

43) 김만수, 『혼돈의 회색시대에 새로운 꿈꾸기』, 현길언, 『회색도시』, 고려원, 1993, 324쪽 참조.

서울로 떠난다. 이처럼 서울은, 탄광촌을 지배하는 권력이 발원하는 공간, 탄광촌을 새롭게 기획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탄광촌은 서울의 권력과 기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실패가 확인되는 지방으로서의 로컬로 그려진다.

『시인 마태오』 역시 서울과 탄광촌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한다. 마태오는 탄광촌을 “자신의 인생 지도에서 지워져야 할 지명”으로 생각하며 “서울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141쪽)한다. 이후 “서울에서의 삶은 끝났”다면서 그것을 “정신 노동자로서의 실패”로 규정하고, 탄광촌으로의 귀환을 “육체 노동자로서의 삶을 꿈”(129쪽)꾸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황혜리를 통해 지배질서의 언어를 회복한 후에는 다시 서울로 가서 시인이 된다. 이 텍스트의 구조가 직선 구조가 아니라 탄광촌-서울-탄광촌-서울로 이어지는 원형의 순환구조인 이유도<sup>44)</sup> “그런 순환이 얼마나 되풀이 되어야 시인은 비로소 시인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일까”(329쪽)는 하는 회의로 소설이 끝나는 이유도, 서울과 탄광촌이 이원적 대립구조의 양극단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탄광촌에서 사건이 발생한 그날 마태오는 군인과 경찰을 피해 탄광촌을 몰래 빠져나간다. 국가 지배질서의 언어는 그로 하여금 탄광촌의 사건을 공포와 광기로 경험하게 만드는 동시에 마태오 자신을 위협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텍스트는, 탄광촌은 국가가 공포를 경험하는 공간인 데 반해 서울은 “개인에게 가능한 단 하나의 완전한 자유 행위”(80쪽)는 자살뿐인 공간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이원적 대립구조의 양극단에 두 로컬을 위치시킨다. 두 로컬의 이원적 대립구조가 선형적인 양 인식될 때, 마태오는 치환된 대립구조 위에서 끊임없이 진자운동하는 개인일 뿐이며 국가 지배질서의 언어는 탐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검은 사슴』은 트라우마적 로컬인 탄광촌을 대하는 서울의 양가적인 감정을 인영과 명윤을 통해 보여준다.

지겨워…… 너도, 의선이도 모두 지겨워. 둘 다 내 삶에서 없어져 버려. / 그렇게 내뱉었어야 했다. / (중략) / 그 끈끈한 불안과 책임감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싶었다. (중략) 황곡을 거쳐 서울로 돌아갔어야 했다.(318쪽)

44) 신재기, 『소설이 만나는 사회, 그리고 삶의 긴장』, 『비평의 자의식』, 국학자료원, 65쪽 참조.

내가 살았던 공간에서 버림받은 것들이 모두 모여 이루어진 다른 공간 같았다. (중략) 이 도시의 공기는 어둑어둑하고 답답했다. 마치 두꺼운 땅을 비집고 어디론가 나가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나가고 나면 진짜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182쪽)

인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의선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는지도 몰랐다”(185쪽)고 회고하며 명운 역시 “의선의 행방을 찾는 일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인영은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283쪽) 의심한다. 인영에게 있어 임의선과 탄광촌은 트라우마적 실재에 해당하며, “무표정을 덮어”(391쪽)쓴 채 상징적인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은 트라우마적 실재에 대한 “책임감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어적 방패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반면, 명운에게 있어 임의선과 탄광촌은 “진짜 세계”이며, “어둑어둑하고 답답”한 서울은 진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균열을 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된다.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이 서울과 탄광촌을 관계짓는 방식은 동일한데, 그것은 탄광촌과 서울을 각각 개인의 트라우마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로컬과 개인의 트라우마의 공포가 무표정 밑으로 잠복한 공간으로 대립시키는 것이다.

서울과 탄광촌의 이원적 대립구조에 기초하여, 서울은 탄광촌을 통제하는 권력의 발원지 혹은 상징적인 지배질서의 공간으로 설명된다. 이 같은 공간의 양분화가 구축된 일차적인 원인은 이 텍스트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주체를 개인으로 치환하였다는 데 있다. 즉, 외상적 실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표를 통하는 것이기에,<sup>45)</sup> 상징적 질서·기표의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주체는 국가에서 서울로 치환되며, 국가가 경험한 공포는 언어화되지 않는다.

## 2) 은폐의 전복: 언어화와 환상성

지배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기에 기존의 상징적 재현체제로는 상징화·언어화할 수 없다. 이 트라우마를

45) 박찬부, 앞의 논문, 36쪽.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여 상징화하고 서사적 기억으로 재구성할 때, 공포를 경험했던 국가는 주체로서 재탄생할 수 있게 된다. 언어화(상징화)는 곧바로 사회화를 의미하기 때문에,<sup>46)</sup>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을 지배질서의 상징체제 안으로 포섭하여 상징화하는 것 또한 트라우마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유력한 방식이 된다.

외상적 기억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일관성 있고 토막 나지 않은 서사적 기억으로 언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텍스트는 중편소설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이다. 폐광이 완료되고 카지노가 들어선 폐광촌에서 사북사건이 재연된다. 박종포는, 국가는 탄광촌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80년의 사북을 기억”함으로써 탄광촌을 “광산 노동자의 땅”<sup>47)</sup>으로 만들기 위한 정신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트라우마의 재연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사북은 노동자 땅이다!”(282쪽)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저항은 “사북사태랑 상황이 똑같”(299쪽)은 “제2의 사북사태”(284쪽)로 확대된다. 협상이 시작되지만, 박종포는 고원 관광 개발이라는 협상 결과를 “탄광촌 사람들을 모조리 석탄박물관에다 집어넣겠다는 협상”(311쪽)이라며 반대한다. 그는 석탄박물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넨 탄 캐다 사고로 다리 잃은 광부 역을 맡는 거고…… 난 진폐증에 걸린 알코올 중독자 역이지. 정선택도 어떤 역(광부의 바람난 아내 역-인용자)인지 알 겁니다. 열 받는 건, 이재모 그 새끼가 맡는 역이야! 그 새끼 계속 어용 노조위원장을 맡을 거란 말이야. 박물관에 들어가서도 광부들 피땀을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할 거란 말이야!”(312쪽)

석탄박물관이 전시하는 것은 사북사건 이전의 탄광촌,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인간 군상이다. 사북사건이 삭제됨에 따라 탄광촌은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은 로컬, 즉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지배질서가 훼손된 적이 없는 로컬이 된다. 박종포의 주장은, 석탄박물관은 탄광촌을 상징하고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로 기획되었다고

46) 위의 논문, 37쪽, 42쪽 참조.

47) 김도연,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 『십오야월』, 문학동네, 2005, 298쪽. 이후 인용 쪽수만 표기.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트라우마를 기억에서 삭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트라우마적 사건이 삭제됨으로써, 탄광촌은 트라우마적 로컬이 아니라 특이하기는 하지만 상투적인 일상의 공간이 되어 지배질서의 상징체제 안으로 포섭된다는 것이다.

카지노를 공격하는 행위도 이 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카지노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자본주의의 심장”(290쪽)인 동시에 자신들의 과거를 제거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카지노 건물 밑에는 “내 아들놈이 태어”난 집과 “내가 신방을 차렸던 곳”(289쪽) 등이 묻혀 있다. 더구나 탄광촌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이 사라지지 않고 있”(294쪽)는 폐사택촌은 카지노의 콘도를 짓기 위해 철거된다. 텍스트는 탄광촌이라는 로컬 전체가 카지노 건물 밑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묘사한다.<sup>48)</sup> 결국 텍스트의 서사는,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석탄박물관이라는 상징체제는 트라우마적 사건을 삭제한 지배질서의 서사적 기억을 유일한 기억으로 재생산하는 장치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작가는 석탄박물관 이외의 또 다른 기억 주체를 돌출적으로 제시한다.

(졸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정선택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떠올랐다고 후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314쪽)

(훗날 술자리에 모여앉은 언덕 위의 구경꾼들은 사노맹의 마지막 투쟁을 빗대어 이렇게 말했다.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고.)(325쪽)

작가는 괄호라는 형식을 빌어 서술자의 시간적 위치를 미래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석탄박물관에 포섭되지 않은 또 다른 기억 주체들과, 지배질서의 상징체제가 삭제하고자 한 기억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 기억의 주체와 내용은 대타자의 담론을 통해서만 말할 수 없는 것들과 관련된다.

또한, 서술의 층위에서 보자면,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은 제2의 사북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점, 역사적 사건의 시간과 공간이 현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탄광촌에

48) 소설은, 폐광촌 “어느 곳에도 내릴 곳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326쪽)닫고는 석탄을 캐던 과거의 자신을 회고하면서 갭 속에 홀로 머무는 박종포를 그리면서 종결되는데, 이 또한 탄광촌 전체의 소멸을 상징한다.

서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비유가 실제적 사건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 등,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있다.<sup>49)</sup> 환상적인 것의 상상적 세계는 전적으로 실재적인 것도 비실재적인 것도 아니며 그 사이의 어딘가에 불확정적으로 위치하는데,<sup>50)</sup> 트라우마라는 파괴적 사건으로 인해 지배질서의 상징체계가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 역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지점이다.<sup>51)</sup> 따라서, 환상성을 강조하는 이 텍스트가 문화정치적으로 위치해 있는 곳은, 트라우마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바로 그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텍스트 자체가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확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텍스트의 환상성은, 카지노와 석탄박물관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을 봉쇄하고 로컬에 대한 기억을 지배질서의 서사적 기억으로 고정하려는 국가의 트라우마 은폐 전략을 전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 글은 탄광촌 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경험한 트라우마에 대한 문학적 기억과 재생산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조국 근대화’의 근간으로 호명되었던 탄광촌은 국가·자본·어용노조의 지배 카르텔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했던 ‘조국 근대화’의 환부·희생양이기도 했다. 탄광촌의 이런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은 사북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노동자 투쟁인 동시에 한국 사회 초유의 로컬 점거 투쟁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배질서가 균열되는 공포를 경험한 측은 지배 카르텔 특히 국가였다. 사북사건은 국가의 트라우마적 사건이었고 탄광촌은 국가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로컬이었다. 사북사건과 탄광촌은 사회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금기·망각의 대상이었고, 문학적 침묵은 트라우마적 증상의 일종이었다.

탄광촌 소설들에 그려진 사북사건과 탄광촌은, 트라우마적 공포와 광기의 사건,

49) 김경수, 『백일몽으로서의 소설』, 김도연, 앞의 책, 335쪽 참조.

50)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문학동네, 2007, 32쪽 참조.

51) 박찬부, 앞의 논문, 40쪽 참조.

지배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공간, 미지의 외-존재적 공간이라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트라우마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로컬에 각인된 국가의 트라우마적 증상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텍스트들에는 트라우마 은폐의 방법들이 은밀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국가의 트라우마는 개인의 트라우마로 치환됨으로써 은폐되며, 트라우마 치유는 대타자의 회복이라는 지배질서 회복과 인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탄광촌이라는 로컬의 대척점에 국가 대신 또 다른 로컬인 서울을 내세우고 지역 서울에 국가의 지배권력을 상당수 이양함으로써, 트라우마의 공포를 경험하는 주체를 서울로 치환한다. 문학적 무관심이 “잊고 싶은 환부”를 망각하는 주요한 방법이지만, 기억의 내용과 방식을 전도하는 것 역시 망각의 주요한 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의 텍스트들은 사북사건과 탄광촌을 국가가 경험한 트라우마적 사건과 로컬로 충실히 그려내고 있다. 지배질서의 언어·상징을 통해 트라우마를 은폐하려는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또 다른 기억 주체를 통해 언어화되지 않은 트라우마적 실재를 드러낸다. 나아가, 환상성을 통해서 텍스트의 문화정치적 위치를 트라우마로 인한 균열의 지점에 고정시킨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 은폐 전략을 전복하고 있는 셈이다.

탄광촌 소설들을 시기순으로 볼 때, 대체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북사건과 탄광촌의 트라우마적 성격은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 외에, 트라우마가 사후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sup>52)</sup>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주제어 : 탄광촌 소설, 트라우마, 사북사건, 로컬, 탄광촌, 치환, 전복

52) 맹정현, 『리비톨로지-라캉 정신분석의 쟁점들』, 문학과지성사, 2009, 239쪽 참조.

## <참고문헌>

### 1. 자료

- 김도연,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 『십오야월』, 문학동네, 2005.  
박상우, 『시인 마태오』, 세계사, 1992.  
이옥수, 『내 사랑, 사북』, 사계절, 2005.  
최용운, 『흰 겨울 검은 봄』, 세계사, 1991.  
한강, 『검은 사슴』, 문학동네, 1998.  
현길언, 『회색도시』, 고려원, 1993.

### 2. 논저

- 구동희,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 『지리학연구』 44권 4호, 국토지리학회, 2010, 514-515쪽.  
김경수, 「백일몽으로서의 소설」, 김도연, 『십오야월』, 문학동네, 2005, 335쪽  
\_\_\_\_\_, 「축도로서의 탄광과 그 소설화」, 최용운, 『흰 겨울 검은 봄』, 세계사, 1991, 332쪽, 339쪽.  
김만수, 「혼돈의 회색시대에 새로운 꿈꾸기」, 현길언, 『회색도시』, 고려원, 1993, 324쪽.  
김세건, 「‘찌들은 몸’-탄광개발과 환경문제」, 김세건 외, 『카지노와 폐광촌』, 일신사, 2006, 197쪽.  
김용규,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9, 73쪽.  
남기택, 「강원 영동 지역의 문학적 정체성 연구-전형적 작가와 작품의 양상」, 『현대 문학회연구』 4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6, 121쪽.  
맹정현, 『리비톨로지-라캉 정신분석의 쟁점들』, 문학과지성사, 2009, 239쪽.  
박영주, 「5·18 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224쪽.  
박은주, 「기억과 망각의 역설적 결합으로서의 글쓰기」,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4, 313쪽.

- 박은태, 「문학사의 관점에서 본 1990년대 후일담 소설」, 허영재 외, 『혁명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박이정, 2009, 142-153쪽.
- 박찬부, 「트라우마와 정신분석」, 『비평과 이론』 15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0 봄 · 여름, 33-54쪽.
- 박철한, 「사북항쟁연구: 일상 · 공간 · 저항」,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쪽, 14쪽, 76쪽, 77쪽.
- 배경민, 「영화 내러티브의 트라우마 연구-들뢰즈의 비표상적 사유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61쪽.
- 신재기, 「소설이 만나는 사회, 그리고 삶의 긴장」, 『비평의 자의식』, 국학자료원, 65쪽.
- 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2001, 202쪽, 226쪽.
- 성희직, 「탄광지역 노동운동의 시대적 변화」, 강원사회연구회 엮음,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7, 614쪽.
- 정선지역발전연구소 편, 『1980년 4월 사북(사북사건 자료집)』, 2000, 6쪽.
- 정연수, 「탄광시의 현실인식과 미학적 특성 연구」, 강릉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쪽.
- 조명기 · 배윤기, 「로컬 지배 카르텔과 로컬 정체성 형성의 주체 투쟁: 강원남부 폐광지 사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인문학연구단 제4회 국내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11, 55쪽.
- 최정기, 「5·18과 양민학살」,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부민중항쟁사』, 2001, 74-121쪽.
-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184쪽.
- 주디스 허먼,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플래닛, 2009, 88-89쪽, 398쪽.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71-80쪽
-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문학동네, 2007, 32쪽.
- 『강원일보』, 1996.7.8.
- 『경향신문』, 1980.4.24.
- 『동아일보』, 1980.4.24.

[Abstract]

## National trauma and response of the novels —A focus on the coal mining town novels

Cho, Myung-ki

This aims to observe the literary memory of the trauma which the nation has experienced and aspects of the reproduction targeting for the coal mining town novel.

Sabuk Incident was the first local occupation struggle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 Sabuk Incident was the traumatic incident to the nation and the coal mining town was the local which the nation experienced trauma. Sabuk Incident and the coal mining town were subject to the taboo and oblivion socially or literally, the literary silence was one of the traumatic symptoms.

Sabuk Incident and the coal mining town described in the coal mining town novels have shown the characteristic that is an incident of the traumatic fear and insanity, a space causing a rift among the order of the dominance and unknown external existential space. In addition, methods of the trauma cover up have been embodied. National trauma is covered up by being replaced with the magnified personal trauma, resolution of the trauma leads to the restoration and approval of the order of the dominance that means the restoration and approval of the substitution. Additionally, an actor which experiences fear of the trauma is replaced with Seoul by pushing Seoul, another local, instead of the nation as the local antipodes of the coal mining town, transferring the considerable dominant power to local Seoul.

However, recent texts relatively describe Sabuk Incident and the coal mining

town as the traumatic incident which the nation experienced and the local. The trauma cover up has been described through the language and symbol of the order of the dominance. At the same time, the unverbilized traumatic existence has been revealed through the other memory actors. Furthermore, through the fantasy, social political position of the text is fixed on the point of the rift caused by the trauma. Through this, strategy of the trauma cover up has been derailed.

Seeing the coal mining novels in chronological order, the characteristics of Sabuk Incident and the coal mining town are positively revealed with the passage of time. This corresponds to the trauma characteristics of an ex-post formation in addition to a factor of the change of the political situation.

【Key words】 : coal mining town novel, trauma, Sabuk Incident, local, coal mining town, replacement, overthrow

---

---

조명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807-3

전자우편: ftw123@pusan.ac.kr

---

---

이 논문은 2011년 7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8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